

# 전북도, 소상공인 살리기 앞장

### 금융기관 등과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협약' 체결... 소 업체당 3000만원까지 1%대 금리로 지원

전북도와 도내 금융권이 지역의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섰다.

10일 전북도와 전북은행, 하나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은 도내 소상공인 경영기반 구축 및 사업 안정화 유도를 위한 '전북도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지원될 경영안정화 자금은 총 100억원의 규모로 도에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당 3,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1%대의 금리만 부담시켜 5년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급~7급 사이)인 사업자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업체이다.

자금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북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할 특례보증 지원자금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정기반이 열악해 개인의 능력으로는 금융권의 자금 이용에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와 유관기관들이 개발한 상품이다.

도는 이번 상품을 통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사업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연 3%대

의 대출금리에 도에서 5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해 실제 소상공인들의 부담금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0%(부분보증)이고 보증료율은 1.0%로 고정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 軍, 수리온기체 균열 "조치중"

우리 군의 최신행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 기체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이 운용 중인 시제(試製機)와 이미 양산된 수리온 등 5대 기체의 앞면 유리창 '윈드 실드'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돌멩이 등 외부 물체로 인한 충격 등이 누적되면서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비행이나 이·착륙 등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윈드 실드' 균열 뿐만 아니라 기체 프레임에서도 실금이 발견됐다. 기체 왼쪽 프레임에 장착된 진동 흡수기 위쪽 끝 부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진동 흡수기는 기체 운행 시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프레임 결함이 발견된 기체는 총 4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레임 균열 역시 비행안전품목(FSP)이나 주요구조품목(PSE) 결함에 해당하지 않아 비행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프레임 균열은 진동흡수기와 프레임이 닿는 부분의 보강재가 미흡했던 게 원인으로 보인다"며 "다음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윈드 실드' 균열과 관련해선 "우선 강화 필름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우리 상담실 한번 둘러보세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도청 3층에 마련된 지역상담실을 둘러보고 송하진 도지사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행자부, 女관리자 비율 내년까지 15%로 확대

(4급 이상)

### 지방-중앙 교류 1~2년 이상으로 · 성과우수자 발탁승진 비율 30%에서 50%로

정부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10.5%에서 내년까지 15%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 교류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행정자치부가 10일 출범 2년차를 맞아 인사원칙을 재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와 균형중심의 행정자치부 인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5%인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를 내년까지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직무내용과 역할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직급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서기관, 사무관을 '팀장'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서기관, 사무관

을 '담당, 계장, 팀장'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해 혼란이 있어 왔다.

통상 1년이었던 지방공무원의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린다. 근무기간이 짧아 몰입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저하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보직의 정보 뿐 아니라 각종 인사교류, 파견 시에도 내부공모(5일 이상)를 통해 공정하게 후보자를 심의·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했던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위군을 6개에서 7개로 1개 추가 신설한다. 전문직위 지정을 140개(15.1%)에서 164

개(16.7%)로 늘리고 전문관 수당 40% 인상을 추진한다.

승진심사 시 업무 성과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책홍보·감사 등 격무·기피 부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원인을 할당해 해당 부서장이 우수 성과를 선정, 별도의 추가 가산점(0.5점)을 주는 등 특전을 강화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보인사 전 개인인 희망·고충 접수를 제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정례화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 '테크카본' 첨단기술기업 지정

### 2년만에 매출 100억...법인세 · 소득세 3년 감면 등 혜택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첨단 탄소 복합 부품을 생산하는 전북도내 업체가 전북특구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아 탄소 관련 업체들의 발전이 기대된다.

1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구 사업화 촉진지구 입주 업체인 (주)테크카본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전북특구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 입주 기업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30% 이상인 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지난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내 기업성장을 견인할 첨단기술기업 후보기업들을 육성·발굴해 왔다.

(주)테크카본은 2014년 설립 이후 2년(2015년)만에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고 도의 지역특화사업인 탄소소재 분야의 기술을 보유해 도와 경제적·정책적으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잘 부합되는 기업이다.

(주)테크카본의 주요 생산품은 항공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고성능 자동차용 탄소-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탄소 복합재 등이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이 국내 고객사이고, 해외 고객사로는 인도네시아 공군, 그리스 공군, 아우디 등이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전북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후보기업을 발굴·지정하겠다"면서 "특구 내 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아갈 계획이며, 올해 내에 5개 이상의 첨단기술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 산사태 피해 제로화 추진

전북도가 산사태 피해 제로화를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여름철 산립재해 대책기간을 맞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적극 나선다.

이에 산림휴양시설지와 민가 주변 임도 등을 집중관리하고, 산사태취약 지역 중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사방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모의 대피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풍수해·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산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다"면서 "산사태에 미리 대비해 산사태 피해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안전처, 16~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민안전처는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6~2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489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올해 훈련은 실전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먼저 제주공항 전면통제와 구미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과거 발생재난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백화점·복합지하상가 등 다중밀집 시설 대피훈련을 지난해 17회에서 올해 89회로 확대해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각 부처 기관장들이 태풍, 유해화학물질 유출, 고속철도 사고, 롯데타워 화재 등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다.

주민과 재난 취약자 대피훈련, 주민 참여 재난수습훈련 등을 37회로 늘려 지역주민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